

경호초등학교 이전 관련 공청회 논란

85억원 투자 새 부지 새 학교,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아이들 자연친화적 삶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눈물호소



여수경호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미래에셋개발투자) 학교 내에서 공청회가 지난달 21일 열렸다. 공청회에는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경도지역구도의원, 경도주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내용은 현재 호텔부지 반경 200m 안에 들어있는 경호초등학교를 소경도 앞 국도로 경도로

이여지는 연육교 입구로 건물을 새로 지어 옮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미래에셋 개발팀 관계자는 “85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학교를 이전해주겠다. 호텔이 지금의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관광객도 학교가 있으면 불편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다.” 또 한 ‘이전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

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특별히 학교 부지로 내주겠다.”는 설 명도 덧붙였다. 공청회 중간에 한 학부모는 “국가와 전남교육청, 지자체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스스로 노력하여 가장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났고 전교생 8명에서 지금은 39



명의 학생이다. 전국에서 이렇게 학생 수가 5배 늘어난 시골학교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운동장에 서있는 저 버드나무와도 소중한 추억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경호 초등학교에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며 눈물로 호소하자 공청회장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경도 한 주민은 “학교 이전 부지라고 말하는 그 곳은 바람이 몹시 많은 곳이고 모든 배들이 지나다니는 시끄러운 곳이다. 그 곳에 가보거나 했느냐. 집 한 채 없는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4억9300

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0월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민선 3기 핵심 공약인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역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이곳 경도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6성급과 4성급 고급호텔 2곳이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 무인도 2곳에는 특화된 빌라콘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도 계획에 들어있다. 또한 미래에셋은 2024년 말 관광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경도해양관광단지를 개장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최현란 기자

주승용, “여순사건 희생자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 환영”

무고한 1만1천명 시민 절차없이 사형 명백한 국가 잘못
대법원 결정 이어, 국회 특별법 제정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근거마련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위해 법정에 나섰던 주승용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내린 및 국민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살아남은 자의 아픔, 사건 진압 후 이승만 정부는 여수, 순천, 동부권 지역민을 반란동조세력으로 낙인찍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71년째 현재까지 차별과 냉대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낼을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 수만 없다는 게 주 부의장의 생각이다.



또 주 부의장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으며,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여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 위하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서로 상처를 안이주고 명예회복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특히 여수시가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해주고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주고 상경투쟁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우리 스스로 간절해야지 국회에서도 청와대도 우리를 보줄 것이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가가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수시민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원 기자

민주당 여수 지역위 개편...총선 준비체제로 ‘전환’

31일 갑·을 합동개편대회 및 결의대회...당원 등 시민 1천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당을 신임 주철현·정기명 위원장 체제로 순조롭게 개편하고, 당을 내년 총선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여수 갑·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3시 각 지역위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 시민회관에서 합동으로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 개편대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개편대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이형석 최고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고, 4.3보궐선거

지역중진 이해찬 당 대표와 박주민 최고의원, 박광온 최고의원,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으로 개편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회에는 지역 단체장들과 당 시·도의원, 대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개편대회는 더불어민주당사단과 대학생 서포터즈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당기인장, 서완석 시의회 의장의 개회선언, 주재현 을지역위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 갑·을 위원장 인사말 그리고 당일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 주제로 정정래 전 의원 초청 특강도 진행됐다. 주철현 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당의 지혜를 모아야할 합치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 합한 발걸음은 2020년 총선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로 향한 것이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정기명을 위원장은 “여수가 전국적 유명세를 타면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당원들과 논의하겠다”며 “그 결과를 시 행정부와



시의회에도 적극 전달할 것이다”고 지역당의 역할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2월 2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시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주철현·정기명 변호사를 각각 여수

갑·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각 신임 지역위원장들은 당직자 임명 및 운영위·상무위원회 등 당규를 토대로 지역위 개편을 진행해 왔다.

김영주 기자

당신의 좋은날
MG새마을금고

암보다 무서운 치매!!
준비하셨나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
골절진단금도 드립니다!

※ 행사기간(4월 8일~5월 7일) 중 상담 및 가입하시는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치매진단비 1천만원
- 골절진단비 30만원
- 골절수술비 50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100만원
- 비갱신 월 2만원대

- 죽림본점 T. 061-684-2511
- 덕양지점 T. 061-683-9005
- 울촌지점 T. 061-683-6717

위치: 전남 여수시 소리면 죽림중앙로 30-55(삼일중학교 앞)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

주재현 시의원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공개 조례제정
대기 수질 법규 위반업소대외적 공개 의무화

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하진 시의원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 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

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영규 시의원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무장에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에 시설 기준 준수

나현수 시의원, 민덕희 시의원 공동발의



무장에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



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에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로나 공원을,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

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에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 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에 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했다. 무장에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위원회의 연구로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시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에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오은진 기자

<제 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

*송하진시의원 : 여수시 공익 기부등 각종 기부금 현황관련

-답변(정수과,관광과): 관광진흥기금 3,650백만원, 일반회계 1,118백만원, 특별회계 1,500백만원, 기타 장학금, 물품 등으로 452백만원이 납부 또는 기부채납. 지출내역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여수밤바다 야간경관사업 등으로 855백만원, 일반회계 등에서 476백만원, 총 1,331백만원이 집행. 기탁금은 3건 1,563백만원으로 1,550백만원은 6월말까지 납부예정.

관광진흥기금 지출사업으로 야간경관(일무미네이션) 조성사업 622백 만원, 자전거도로(돌산 우무?전모지구) 개설공사비 198백만원, 숙박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34백만원 총 3건에 854백만원을 지출. 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은 6개소에서 3,650백만원과 이자발생액 27백만원으로 총 3,67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건에 854백만원 지출. 2018. 12월말 현재 잔액은 2,822백만원이며, 2019년도 예치금으로 보관.

*정현주시의원: 전라선 옛철길공원 시설물 안전조치 강화계획, 인도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공공편의시설

-답변(공원과): 자전거 속도 제한표지판 및 노면 표식을 추가, 계도 및 홍보 플레카드 거치대를 설치,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간 안전사고 예방, 진입로 추가개설 민원, 배수로 단절 등 2019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보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공원관리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 및 경미한 시설물 정비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음.

올림픽별 부근과 신기아파트 부근에 화장실 추가 설치, 미평공원 바닥분수와 야외무대 주변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고용진시의원: 여수시 청년 일자리 추진 관련 계

이규원 기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국비 10억원 확보’

이용주 의원, 생활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전남경기장 내 건립되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상 2층에 연면적 3,300㎡(약1000평) 규모로 관람석을 포함한 12면 코트의 체육관과 사무실 및 탈의·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경기장으로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배드민턴은 많은 클럽과 동호회원을 보유한 가장 대중적인 생활체

육 스포츠 중에 하나로 그간 배드민턴 전용시설에 대한 여수시민의 요구가 계속 증가해 왔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국제 및 국내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전국의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 선수의 전지훈련지로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수시 배드민턴의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배드민턴 전

용시설을 요구하는 3천여 명의 시민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발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25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3500만원(▲여수공업고등학교 5억 5,500만원▲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3억천만원)을 확보하여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기자

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이 말하는 여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책

울촌산단 배후택지 조성...일자리 창출

돌산회타운 개발, 남산공원, 박람회장 이용...해양관광 클러스터 구축

최근 191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서완석 의장에게 시정 주요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다음은 서완석의장의 의견이다.

전남 제1의 도시 위상 지키기, 인구 늘리기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여수시 인구는 28만 2,800명, 1년 전에 비해서도 3,500명이나 줄었고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교육, 보육환경, 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구를 늘리는 첩경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늘어난 인구는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하게 된다. 우리 여수에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큰 중심축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관광산업 이 두 가지로 본다.

여수산단의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약 7조 원 정도의 신규투자도 공장이 신?증설 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촌 제2산단이 2025년경 조성 완료되고, 제3산단이 2030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올촌산단 배후 택지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올촌지역은 산단배후 택지 후보지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다. 먼저 지리적 이점으로, 올촌면 소재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17호선, 올촌산단 진입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순천과 광양, 우리 여수의 도심까지 어느 곳이나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순천시는 올촌 2·3산단 조성에 대비해 해룡면 선월지구와 복성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시는 신대지구에 인구를 빼앗겼던 경험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이제 여수도 선제적으로 올촌에 산단배후 명품택지를 개발해 광양만권 산단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 조성한다.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위상 정립은 물론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관광 분야다. 최근 몇 년간 여수가 해양관광도시로서 국내외에 명성을 갖게 되어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7년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기존 여수밤바다, 해상케이블카, 남반미커링, 남반포차 등의 콘텐츠에 머물러있는 한 된다. 이제 또 다른 관광콘텐츠를 마련해야말로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남산공원 여련조사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게 아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본 후에 남산공원 조성방안을 최종 결정하지는 것이다.

시 집행부는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시비 약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도심근린공원으로 조성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시민 여련조사에서 다수가 도심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다. 민선 7기 들어서 여수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여련조사에 떠넘기고, 이를 핑계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하다.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두고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여련조사를 서둘렀다는 생각이다.

우리 여수가 국내외에 내로라하는 해양관광도시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남산공원 부지를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향후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민간투자가 이끌어 내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부산시는 올해 2월, 중앙동에 롯데그룹이 4,500억 원을 투자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롯데타워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부산시장은 이 랜드마크 공사로 인해 9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900여 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2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남산공원을 국토부 계획대로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의 활세인 시비 약 300억 원도 아끼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조성될 경도 해양관광단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여수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가 될 것으로 본다.

관광이란 게 트렌드가 있고 부흥과 쇠락의 사이클이 있어 10년 이상 계속 번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관광객의 욕구와 취미를 자극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마련하지 않으면 그 관광지는 금방 쇠퇴기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물론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관광 분야다. 최근 몇 년간 여수가 해양관광도시로서 국내외에 명성을 갖게 되어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7년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기존 여수밤바다, 해상케이블카, 남반미커링, 남반포차 등의 콘텐츠에 머물러있는 한 된다. 이제 또 다른 관광콘텐츠를 마련해야말로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남산공원 여련조사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게 아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본 후에 남산공원 조성방안을 최종 결정하지는 것이다.

시 집행부는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시비 약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도심근린공원으로 조성



양관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억 통합 당시 33만 명에 달했던 여수시 인구가 급기야 28만 3천여 명까지 떨어졌다. 새로운 관광 콘

셉트 확충으로 관광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산단 신규투자도 더 이상 여수 인구를 타지 인근 지역에 뺏기지 않아야겠다.

최한란 기자

191회 여수시의회 10분 발언

백인숙시의원 :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수동 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할 것을 제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환경교육센터 설립이 필요. 올해 웅천지역에 이순신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이므로 환경도서관을 본래 취지에 맞도록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학습공간의 교육센터가 필요.

문갑태 시의원 : 여수평화의 소녀상 ‘여수시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여 평화와 인권 실현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 1억여 원의 시민성금으로 세워진 여수평화의 소녀상. 2017년 3월 1일 제막식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평화인권의 상징. 평화공원 확충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많은 작가 참여를 유도해 평화 인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제안.

송재형시의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호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음 돌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공원, 38년간 지속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 지적,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섬을 나가고 있는 현실을 환기.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김영주 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군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대표전화 : 061 654-8885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 654-8885, 팩스 : 070 8220-8808

기사제보·배달안내 : 061 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 654-8885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3(주관) *등록일 :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여수시, 사회책임지수 전라남도시, 군 ‘1위’

지난 22일, 전국 242개 지자체 대상 사회책임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여수시가 전라남도 시·군 중 사회책임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사회책임지수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지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번 평가를 공동 기획한 한국CSR연구소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등 4개 부문 107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365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수상은 여수시가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과 동시에 시민 중심 시정을 펼치려는 당부의 목소리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사

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란 기자

여수 동동북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전남도 공모 선정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 발표(29일)···여수시 도비 2500만 원 확보

여수시가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29일 ‘여수 동동북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 전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이 함께 매력적인 경관을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사업으로 전남 11개 시군이 응모해 여수시, 강진군, 장성군, 영암군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고려가요 동동(動動)의 배경지역이라는 역사적 스토리와 동동 북축제 상징조형물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열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오는 6월 경 용기 공원에 동동북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용기공원 전경

특히 이번 사업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공감형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여수 동동 북축제와 소

호 동동다리의 상징성을 강화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완 기자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16일부터 소호요트장·웅천친수공원·진남체육공원 주차장···2시간 무료
노상 오토도 주차장 제외 모든 공영주차장···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

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소호요트장, 웅천친수공원, 진남체육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상주차장과 오토도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주민 설문과 올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시는 무료 이용시간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동, 화장동, 고소동, 중앙동 등 주차난 심각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 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주차장 주변 교통 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차장 관리와 운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차량 25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여문공원 공영주차장을 지난달 26일 준공했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서교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한다.

한해광 기자

주승용 국회의원장,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1974년 건설 후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 높아

국비 2,006억원 투입해 3만 톤급 1선석, 5만 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



▲주승용 국회의원장

주승용 국회의원(광양·나포)은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정부 의

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또한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

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처리와 물류비 절감, 광양(여천)항 나포부두 안전성이 확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나포부두 리뉴얼사업으로 인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여수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힘

최현란 기자

우리 동네 소식



여서동 – “물 절약 2310 함께해요”

하루 10% 물절약하면, 1년이면 팔당댐이 2개

여수시 여서동(여서동장 김재호)이 ‘물 절약 2310’ 캠페인과 불빛이 대청소를 했다. 여서동사거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물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중앙동 – 새봄맞이 관광지 청결활동

LG화학 여수공장봉사단 등 80여 명 참여

여수시 중앙동(동장 박상훈)이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 바르게살기회원, LG화학 여수공장봉사단원,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여 관광지 청결활동(29일)에 나섰다.



여천동 – 새봄맞이 대시민 청결 캠페인

통장협의회, 불법투기감시원, 직원등 50여 명 참여

여수시 여천동(동장 김돈주)이 지난 29일 새봄을 맞아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통장협의회, 불법투기감시원, 직



종화지구 – 새마을마을사업 공모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

시는 올해부터 4년 간 종화동 2통과 4통, 수정동 10통 일원에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종화지구에서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



충무동 – 독거어르신 ‘새마을도시락’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께 도시락 전달

여수시 충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홍수)와 새마을주민협의체(위원장 정복순)가 지난 2일부터 독거어르신 ‘새마을도시락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 독거어르



미평동, 노인일자리 ‘교통안전교육’ 진행

노인일자리 어르신 50여 명 일자리 참여

여수시 미평동(동장 류갑선)이 지난 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교통안전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어르신 50여 명이 참

캠페인 참여자들은 ‘하루 10% 물절약하면, 1년이면 팔당댐이 2개’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 홍보물을 배부했다. ‘물 절약 2310’ 캠페인은 전 국민이 2023년까지 매년 2%씩 5년간 물 사용량 10%를 절약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여문 문화의 거리에서 불빛이 대청소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순신광장, 진남상가, 교통시장, 고소천사전방에서 생활폐기물 170kg을 수거했다. 강용명 주민자치위원장은 “중앙동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깨끗한 마을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는 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과 물 절약 2310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사업과 마을해설사 양성,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주택정비, 축대·노후 위험시설 보강 등 안전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 마을카페, 마을교육장 등 휴먼케어사업도 진행된다.

신 16명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은 독거어르신께 도시락을 배달하며, 건강과 주거환경을 살핀다.

충무동은 이번 사업이 독거어르신 건강 증진과 고독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했다. 여수경찰서 직원 2명은 사례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류갑선 동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진 기자

알림방

1.여수시 신혼(예비)난임부부무료검진 항목 추가

보건소 준부보건지소, 3월부터 소변검사 2종(당뇨, 단백뇨) 무료 검사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난임)부부와 예비 난임부부다. 검진은 보건소와 중부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를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난임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를 검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여수시,배수지 청소로 4월 중 일부 지역 단수

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배수지 가압장 42개소를 청소 소독하며, 그 기간 중 11일 동안 단수를 실시한다.

단수 대상은 14개 지역 6100여 세대다.

단수 일정은 ▲12일(09:00~13:00) 우두리상하동 일원 ▲13일(13:00~18:00) 현암도서관일원 ▲14일(13:00~18:00) 만흥, 오천 일원 ▲15일(09:00~13:00/ 13:00~18:00) 계동마을일원/ 성두마을일원 ▲18일(09:00~18:00) 서강, 광무일원 ▲19일(13:00~18:00) 구봉중학교 일원 ▲24일(09:00~18:00) 두암택지지구 일원 ▲25일(15:00~18:00) 향일암대 표소 일원 ▲26일(09:00~13:00) 무지개아파트 일원 ▲27일(09:00~13:00/ 13:00~18:00) 한영고 일원/ 둔덕문치부락 일원이다.

여수시, 2019 국가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여수시가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국제해양관광광휴양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내의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



하며, 소비자 설문조사,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가 매겨졌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12일간 전국 만 16세 이상 1만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54점을 얻어 국제해양관광광휴양도시 부문 1위에 올랐

다. 사천시, 안산시, 거제시, 목포시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여수의 보석 같은 365개 섬과 천혜의 자연경관, 풍성한 먹거리와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낭만버스 등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높게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상생관광’, 정직한 서비스로 믿을 주는 ‘신뢰 관광’,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관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해 명품 해안자전거길, 카약?윈드서핑 등 해안레저스포츠 체험, 공룡 무지개마파교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이순신광장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변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여수 시민 스스로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여수 제주도와 동일 수준강원도 강릉보다 공기 깨끗한 곳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관광 안내소 앞에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변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다.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빨강은 매우 나쁨, 노랑은 나쁨, 초록은 보통, 파랑은 좋음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24일 여수 미세먼지는 오전 11시

기준 23㎍/㎥ 초록, 초미세먼지는 10㎍/㎥로 좋은 상태 파랑이었다. 이는 계속되는 꽃샘추위로 초미세먼지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몰려온 지난 5일, 여수 이순신대교 근처는 안개에 싸인 듯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여 있었다. 이는 여수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수는 전국 15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가장 청정지역으로 손꼽힌다.

한국 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전국에서도 몇 없으며, 그중에서도 여수는 제주도와 동일 수준으로 산이 많은 강원도 강릉보다도 공기가 깨끗한 곳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100분의 1

의 굵기로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심장 장애, 뇌졸중 등 각종 병을 유발한다.

해로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수 시민 스스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김지중 학생기자(구봉중3년)



봄꽃 향기 관광객 유혹, 여수 봄이 왔다

여수시 자투리땅 도로변 화사한 봄꽃 단장



여수 봄바다 ~ ~여수도 봄이 왔다! 어느새 길가의 가로수 벚꽃 나무들은 하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영취산도 분홍 준비를 했다. 자연도 이렇듯 부지런히 봄맞이 준비를 하는데 여수시민들도 가만히 바라만 볼 수 없지 아니한가! 이에 여수 시민들도 부지런히 봄맞이를 시작했다.

여수시 월호동이 지난 14일 주민센터 앞 자투리땅과 도로변 마이카화분 등에 팬지, 비올라 등 화사한 봄꽃 3800여 본을 심었다.

지난 13일 여수시 모도동이 자생단체 회원과 동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순신홍보관 일대에 팬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심었다.

충무동은 지난 14일 좌수영로와 연등길 간선도로변 공한지와 자투리땅 18개소 1680㎡ 면적에 팬지, 비올라, 석죽, 꽃양귀비 등 봄꽃 1만 여 본을 심었다.

화정동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야항 진입로 등 6개소에 봄꽃 1만 여 본을 심었다. 개도, 낭도, 월호도 등 섬마을 주민도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봄꽃을 심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꽃섬 하화도도 지난해 파종한 1만 6000㎡ 유채꽃밭의 잡초제거와 비료작업 등으로 분주했다.

여천동, 국동, 충무동, 미령동, 봄을 준비하기 위해 여수 관공서뿐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연이 만든 봄옷과 정성이 깃든 봄옷으로 여수 자투리땅, 도로변을 다채로운 꽃으로 채웠다.

여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 더 아름답게 변모 했다.

포근한 날씨를 맞아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꽃밭 주변에서 연신 카메라를 돌려댔다.

이정훈 시민기자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 사랑의 중식나눔’

새우탕수육과 볶음밥, 기타와 섹소폰 노래가 있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

제9기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기별 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사랑의 중식나눔’이 지예스 칼텍스 사택 영빈관에서 6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차량봉사에서부터 건강한 웃음과 활력을 드리기 위한 기타연주와 섹소폰, 노래봉사, 그리고 음료와 과일을 제공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손

길이 필요했다.

특히 김덕만부위원장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기에 앞장선 조재공과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알맞은 맛있는 새우탕수육과 볶음밥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입맛까지 고려한 사랑이 가득한 식사시간이 되었다.

뒤에서 소리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김태형동장과 직원들의 지원이 있었고, 박문진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하나로 뭉쳐 봉사하는 위원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었다는 후문이다.

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삶이 이 한순간만이라도 따뜻한 봄처럼 따뜻 포근한 여유를 느끼는 행복한 삶이길 바래본다.”고 말했다.

이동림 시민기자



아름다운 사람 즐거운 활력, 미소로 봉사하는 김여사



“함께 사는 세상” 함께하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분”이 있다.

연등동에 있는 GS 칼텍스 사람나눔터에서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을 신선한 재료를 선별하여 음식만드는데 열을 올린다.

서로 생명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꽃을 피우며 보약 다리는 마음으로 받도 짓는 김여사.

오늘도 기쁨에 베풀 마음과 정성을 담아 대접한다.

김여사로 통하는 바른선거 여수시민 여성 지회장 김옥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정도 봉사활동을 하시냐고 물으니, 쑥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봉사활동을 15년 넘게 시간 나는대로 틈틈이 하므로니 건강이 저절로 찾아온다 하신다.

그 말에 옆에 함께한 바른선 회원분들이 엄지를 척 세우며, 일주일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하신다고 대신 말씀해주신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봉사를 하니 즐거움과 활력을 얻는다고 하면서,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육신의 눈은 멀어가고 마음에 눈이 밝아지고 몸도 걱정일랑 없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언제나 기쁨에 베풀 얼굴로 흥에 맞춰 칼질을 하니, 열이 있는 물에 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에 입으로 말하는 관음보살과 눈으로 화답하는 세지보살이 하나가 되어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있는 것만 같다.

우리는 태양빛 햇살이 향기나는 것처럼 어둠속 별들이 화답하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에 하나처럼 빛난다.

최정규 시민기자

이것이 자연의 힘이구나! 인간이 사는 맛이구나!

언제 왔을까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다 무엇을 보여 주려고 살포시 왔을까! 생명의 싹을 잉태하여 모진 추위를 이겨 내더니 화려한 자태를 이젠 보여주고 싶은가.

가자가지에 맺힌 자연을 뒤로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표출 하는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향연에 위해 여정을 떠난다.

여수일보 시민 기자들과 ~ ~찾아가보자! 새 생명의 터트림을 확인하라.

여수망마 경기장 앞에서 집결하여 여수일보가 스폰한 관광버스에 몸을 실어 하동 화계장터 쌍계사 벚꽃 십리길을 답방하러 간다. 기대만 설레움 반으로 시민기자단 30명은 분위기에 젖어간다. 김밥, 빵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 약 1시간30분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혹여 꽃이 피지 않았을까 우려했던 상황을 떨쳐 버리고 황홀하게 수놓은 생명의 향연은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전경이 펼쳐지고 있다.

야간 벚꽃길 투어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다 야간의 조명 위에 펼쳐지는 하얀 꽃송이는 봄의 전령, 형형할 수 없는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시민 기자단 여러분과 삼삼오오 모여 자연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으로 담아내고 그대의 아름다움과 대화 하면서 모두들 웃음꽃을 피운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구나. 이것이 인간이 사는 맛이구나. 하루 밤의 힐링으로 영원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새겨 넣어 보는구나. 즐겁다 살맛이 난다. 이런 여유 언제 엿들까..... 꽃길에 펼쳐놓은 아름다운 길 위에 우리는 추억을 적어놓고 서로의 정을 확인했다.

화계 장터에 열리는 작은 음악회와 야시장에서 푸짐한 먹거리에 우리의 기자단도 꽃의 향연에 취한 몸을 한잔의 술잔으로 적시어 본다. 도토리묵.



파전 .막걸리. 이 밤의 즐거움을 마무리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늦은 시간에 여수에 도착 하였다 정말 뜻있는 야간한장실습. 감사합니다! 여수일보 김영주 대표님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쉽게 추진하시는 봉사와 배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여수일보 최향란편집국장님 이 행사를 기획 하고 추진하신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음식, 음료수 .막걸리. 김밥. 도너츠 등등 스폰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수일보 시민기자분들 ~ ~ ~찾아뵙습니다.

신양호 시민기자



청찬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헌혈 봉사 2백회 이웃 사랑 실천해온 여수 토박이 최태영씨

“여러가지 다양한 봉사 중에 헌혈 봉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최태영씨는 “젊은 시절 해병대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딛던 시기에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 출혈이 심한 위급한 환자를 위해 긴급 수혈을 하게 되었다. 헌혈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한 목숨을 살리는 귀중한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라고 했다.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헌혈 기증을 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태영씨는 헌혈 봉사 단체 ‘바음으로’ 회원과 함께 매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생업인 푸드 트럭 ‘팔천순대’를 운영하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그래도 헌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헌혈 증서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참순대 1인분(5천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최태영씨가 고객들께 받은 헌혈증서가 3백장을 넘어서고 있다.



그는 헌혈이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건강한 자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헌혈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유로 헌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하며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강재경 시민기자



벚꽃에게 길을 묻다!

연분홍 꽃잎이 옷깃을 잡고 걸음걸음을 멈추게 하여 달려간 그곳, 쌍계사 십리꽃길!

박경나 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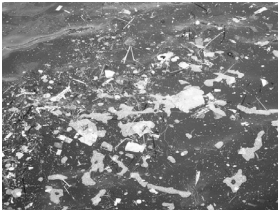
바다쓰레기 정화활동을 하면서...

여수시 소호동 일대 디오션 연안에서 서남해환경센터 회원10여명이 겨울에 밀려와 있는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이곳에 모여 밀물 때 연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살펴보았다.

이곳 해안가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조류의 영향, 물때와 바람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양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엔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파래 등이 많이 밀려와 색이 변하는 등 마치 솜이불이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파래와 함께 밀려온 어구나 나일론 줄이 많았는데 주변 양식하는 어민들이 수확을 하면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낚이나 칼로 자른 나일론 로프가 파래들과 뒤엉켜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엔 폐목이나 스티로폼의 비중은 작았지만 나일론 로프의 어구가 많은 점이 계절의 해양쓰레기(굴, 홍합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었다.



또 다른 곳엔 벌써 봄이라 작년에 떨어진 연안의 염생식물이 싹이 터 자라고 있었다.

자연의 시계는 흐르는데 우리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은 왜 역행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봄은 많은 생명을 잉태하듯 우리가 사는 연안도 천혜의 자연이 꽃피어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일(연안의 해양쓰레기수거, 생태모니터링)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연안의 자연환경을 가꾸어가는 지킴이 의식이 여수시민 모두가 가져야 할 사고라고 본다.

서남해환경센터 최윤정 회원

여수산단 내 아이씨케미칼 자재창고 불

롯데케미칼, 동성코프레이션에 이어 아이씨케미칼까지 안전사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와 여수산단 안전결의문 낭독 등 많은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산단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여수산단 내 아이씨케미칼 자재창고에서 불(19일)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30분 만에 진화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가 난 자재 창고에는 세제원료인 제암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씨케미칼은 세제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지난 2015년 반응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의 작업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공장 안전교육장에서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 안전관리 의식 강화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합동방재센터 소속 공무원과 각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자

등 142명이 참석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각 사업장 담당자들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5개 부처는 화학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여수, 울산, 구미, 시흥, 서산, 익산, 충주 등 전국 7개 거점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현란 기자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

희귀 조류,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 오동도 앞 해상 석유제품 운반선 T호 화재, 4명 구조 2명 사망

화재 진화에 경비정 16척, 유관기관 4척, 민간선박 2척 투입

여수 해양경찰서는 20일 여수 오동도 앞 해상 석유제품 운반선 T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을 구조하고 선내 화재진화 중 탈출하지 못한 선원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09시 30분경 갑판장 김 모씨(65세, 남)와 갑판원 김 모씨(70세, 남)가 2층 거주 구역 내 개인침실에서 각 각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석유제품 운반선 T호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출항하여, 19일



새벽 여수묘박지에서 화물유(병커-C430톤, 경유 60톤) 이적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규환 기자

봄철 산악사고 증가, 등산객 주위 필요

대경도 해안가 등산객 1명 추락, 생명에는 지장 없어

봄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경도 해안가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 모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난 22일 있었다.

이번 사고는 등산중 경사로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바위와 충돌하여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대퇴부 골절이 된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환자의 상태 확인 후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위계는 센터장은 "해안가 주변 등산로는 경사가 낮아도 미끄러운 바위와 날카로운 문제가 많아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체능력과 맞는 안전한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은진기자



이 적발에 나서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호(9.77톤, 승선원 20명, 여수선적) 선장 A 모(63세, 남)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호(9.77톤, 12명, 여수선적) 선장 B 모(62세, 남) 씨를 적

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주 기자



현장취재

신기아파트 서민과 나이 많은 노인들 살고 있어 무시하는가!

시민 위한 휴식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소외의식 주민들



여수시가 전라선 옛 철길 공원, 만흥동에서 소리 덕양까지 16.1km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신기아파트 1단지 뒤에서 올라오는 공원 진입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현장 취재에 나섰다.

시는 옛 철길 공원을 민, 관, 산이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수산단 6개 기업이 공장용지 확대에 따른 대체녹지로 조성된 공원으로 이는 여수시민 전체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신기아파트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비탈진 흙길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신기아파트 2차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신기아파트 1단지에서 30년을 살고 있다는 주민 김모씨는 "신기 아파트 1단지 뒤에서 철길공원으로 올라오는 길이 두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모두 오래전부터 있던 옛길로 신기 1,2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다. 얼마 전 이 길을 오르시던 할머니 한 분이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민원을 제시한 주민과 함께 찾아간 옛길은 경사가 70도는

되어 보이는 좁고 험한 길이다. 잔비라도 내린다면 매우 미끄러워서 낭떠러지 같은 길 아래쪽으로 굴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때마침 가파른 길을 올라오는 60대 남자 세 명을 만났다. 올라오기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며 "30년 넘도록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체념하고 다닌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구간 진입로는 계단을 데크로 깔아서 다니기가 수월하던데 여기 신기아파트는 서민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만 살고 있으니 무시하는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더라"라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만흥동에서 울촌면까지 21.4km 구간 사업이 현재 남아 있다. 총 사업비 1000억원 중에 신기아파트에서 올라오는 70도 경사 비탈진 옛길에 투입될 예산은 절대 불가능한 것일까?

신기동 주민 김모씨는 "대체 녹지로 조성된 시민공원인데 신기아파트 주민만 소외된 것 같다"고 말하며 위험한 옛길을 내려갔다.

최현란 기자



시민의 목소리 (호루라기)

1. 시민회관 전가차 충전구역 크레인이 있어야 주차가능 어디로 들어갈라는 말인가? 입구가 없는 전가차 전용 충전구역 전가차 소유자 김 00



2. 숨이지만한 대형 개가 목줄도 없이 옛철길공원 구 여천역 근처에서 노상방뇨중 이 검은 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검은 개와 덩치가 비슷한 어린이의 엄마 김 00



KOLON FASHION

GGIO² 지오투

정장/캐주얼/취업/입학/혼주예복 전문



지오투 여수점

663-1414

교동 롯데리아 앞



달빛 아름다운 월호도, 이동복지관

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환경미화서비스다양한 복지서비스



미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나종순)은 달빛이 아름다운 섬 ‘월호도’에서 섬마을 이동복지관 프로그램(23일)을 진행하였다. 금호미쓰이화학(주)여수공장, 순천성가톨릭병원, 한국걸스카우트 여수지구연합회, 여수정보과학고 마루한DG,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영상동아리가 참여하여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환경미화서비스, 간식 및 후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섬마을 이동복지관에 함께 참여한 금호미쓰이화학(주)여수공장 이진현 차장은 “주말 인데도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올 한해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구급함 세트를 후원 예정이다.”고 하였다.

월호도 주민 강 모씨는 완성된 벽화를 보고 “마을이 환해지고 너무 예쁘다”며 감사를 표하였고, 미령종합사회복지관 나종순 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마을 이동복지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

수산인의 날 기념 해안가대청소 실시

YGPA, KOEM, 산단 임직원 등 100여명 참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26일 여수시 적량동 우순도 해안 일원에서 여수관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여수산단 임주기업(GS칼텍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수산인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8회째 해안가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 여수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로 해안가에 쌓인 페스티로폼, 생활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7톤을 수거처리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해광 기자

수지방해양수산청,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개인별 머그컵 사용 독려, 청사 내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릴레이 환경캠페인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돌아온다는 점에서 해양수산 업계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여수관광항만공사의 릴레이를 이어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여수해수청은 그동안 1회용품 줄

이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종이컵 대신 개인별 머그컵을 사용을 독려하고, 청사 내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하는 등 자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은 해양오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수청은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남해수산연구소와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를 지명해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최형만 기자

여수일보 시민기자단 야외학습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어둠이 스며든 저녁 7시에 망마체육관에서 집결하여 하동 쌍계사로 출발한다. 여수일보 시민기자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시민기자로서 익혀야 할 기본소양 교육을 10강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6주째, 야외수업을 통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감정을 글로 옮겨서 자기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아직 겨울이 달하지 않고 봄이 활짝 열리지 않았는지 저녁 날씨가 쌀쌀하여 우리는 패딩이나 점퍼를 입고 봄을 재촉해 본다. 쌍계사 십리길은 좋은 사람과 걷는 길이라 했다. 살짝 웃는 쌍계사 벚꽃 길을 걸으며 가슴에 담아 놓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

과 밤꽃을 마시며 그 길을 걷는 다. 여행은 두발이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떨릴 때 하는 것이라 했다. 좋은 분들과 즐거운 꽃길 여행은 심장이 꽃처럼 활짝 웃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강가에 풀을 바른듯 반질반질 운기를 낸다. 시간이 멈추어 다오를 밟으며 바늘을 세우자. 꽃피는 산골터에서 이쁨을 뽐낸 아주머니들이 아기 주머니를 달고 활짝 웃는다. 앞선 이가 나 잡아 봐라 뽀뽀 잡하면, 뒷선 이도 어흥하고 호랭이가 되어 잡하면 잡아 먹으며 하면서 뽀뽀잡하며 하하호호 웃음소리에 진저리를 치며 하나



가 된다. 우리는 자연과 진리와 사랑과 음악을 들으며 행복 엔돌핀의 4000배가 생성된다는 다이돌핀을 동동주에 담아 마셨다. 우리는 하늘과 자연과 사람을 보고 읽으며 만물의 이치와 삶의 깨달음도 가져본다. 이 아름다운 밤에 꽃길에 열린 어둠을 열하 안고 창공과 자연과 인생을 읽는다.

최정규 시민기자

[농사는 자연이다] <3>

꽃도 먹을 것 많은 토양에서 많이 핀다

영취산진달래 산성토양 잘 자란다



하병연 박사 (경상대학교 학술교수)

토양의 산도는 토양 중에 있는 활성 수소가 이온(H+) 농도를 측정하여 pH 7.0을 중성으로 하여 이보다 낮으면 산성토양, 높으면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한다. 산성 토양이라고 해서 환경오염과 독성이 심한 죽은 토양이 아니고 염기성 이온인 칼슘이온(Ca++)과 마그네슘이온(Mg++) 양보다 상대적으로 수소가 이온(H+) 양이 많은 토양을 말한다. 대부분의 작물은 산성에서 잘 자라지 않고 중성 토양 부근에서 잘 자라 토양 중 양분의 유효도를 함께 고려하여 pH 6.0~ 6.5 부근이 되도록 토양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pH 5.0~5.5)와 진달래(pH 4.5~5.0)이다. 토양 pH가 중성 정도로 올라가면 소나무와 진달래는 생육 피해를 입고 그 자리에 활엽수가 자란다. 우리나라 전국토가 소나무와 진달래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산림지 토양의 산도가 대부분 산성토양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9년도에 여수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 토양과 식물체를 각각 분석하여 무기양분이 진달래 생육



▲그림 박남훈

과 꽃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때 당시 진달래나무 생육과 꽃 상태가 양호한 GS칼텍스 쪽 정상 부근과 진달래나무 생육과 꽃 상태가 좋지 않은 봉우재 부근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양쪽 다 토양 pH는 4.2~4.3 정도로 유사하였지만 GS칼텍스 쪽 정상 부근이 봉우재보다 토양 양분 함량이 대체적으로 높았고 꽃잎 내 양분 함량도 높아 무기 양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달래 나무 생육과 꽃 개화 상

태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다. 결국 먹을 것이 많은 토양에서 꽃도 많이 핀다는 뻔한 이치이었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하나인 영취산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초에 진달래가 만개하여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이런 장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달래 생육에 적합한 토양관리와 양분관리가 필요하다.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여천공단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꽃도 사람 돌보듯 돌보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토양 개량과 무기양분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와 화학비료를 꽃 주변 토양에 뿌려주면 된다. 축제의 주인공인 진달래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양분 함량도 높아 무기 양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달래 나무 생육과 꽃 개화 상

한해광의 <애양바라기>



▲서남해 한해광 센터장

여수가 준비하는 2026 섬박람회는, 첫 번째, 여수의 365섬의 개별 섬의 가치를 찾고 만들어야한다. 여수가 365 생일섬을 찾아냈던 것이 섬박람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여수만들림을 만든 것도 중요하다. 권오봉시장 지시로 26개국에 홍보를 한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수 행정에서의 준비는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계획이나 의도를 늦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둘째, 개발의 눈에서 보존의 눈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다대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되 정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섬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을 특성을 살리는 마을 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즉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 되는 것이다. 또 해양환경과 연관습지 보존이야말로 환영받는 섬박람회, 성공하는 섬박람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구상을 마치고 올해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좋은 방향이다. 올해 국가 기념일인 제1회 섬의 날(8월8일) 기념식 서부권인 목포신안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여수는 전 방위로 뛰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여수시(시장 권오봉)에서 주관하여 참관한 여수만 클럽(회장 송영진) 대

2026 환영받는 여수 섬 박람회, 해양과 사랑에 빠지다!

세계적 아름다운 자연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여수시 지원 있어야



표단이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대만 평후에서 세계만들림 제14차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연차총회는 세계26개국 40여개 이상의 만이나 항구도시에서 참석했다. 의제는 “해양과 사랑에 빠지다”로,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 및 관광, 해양경제, 협력-공동창작 등이 논의됐다. 당시 경제해양수산국 송석주 국장을 단장으로 6명이 참석했었다. 이 총회는 단순히 만과 항구만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곧 해양의 전반적인 의제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해양싱크탱크적인 대회를 방불케 했다. 연차총회의 장소도 섬나라 대만에서도 비행기 1시간가량 이동해서 도착한 평후라는 섬이었다. 제14차 연차총회 행사에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참석해 만총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 만클럽 제14차 연차

총회에서 2026섬박람회 홍보하는 광경 이란 세계행사에서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갖은 것은 여수의 행운이다. 참석자 모두가 환영하고 박수쳐주고 동참해주는 분위기였다. 한편 평후는 타이완의 남서쪽 바다에 위치해 약 60여 개의 섬을 포괄하는 군도다. 현무암 바위와 산호초, 침식되고 움기된 신비한 암석들, 드넓은 해변과 철새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뤄졌다. 이곳은 매년 4~6월이 되면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지며 가을과 겨울에는 해산물 축제가 열린다. 또한 평후는 요트와 윈드서핑의 명소로도 유명하며 세계적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타이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섬이다. 이는 곧 타이완 정부의 지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정부와 여수시는 알아야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비산배출시설 관리자 교육 실시

4월 5일 1층 대강당서 신고시설 관리운영방법·연간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4월 5일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운영방법, 연간점검보고서 작성요령, 정기점검 실시 기간 및 기술지원 신청방법 등이며, 이후 교육 참석자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과 비산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5.01.20. ‘15.07.21. 시행)하였고,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 3에 따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의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

물질이 미세먼지와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만큼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사업장은 매년 1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정기점검(1회/3년)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9년 연간점검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4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비산배출시설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연간점검보고서 제출 등) 준수해 줄 것”과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여천장례식장 앞 삼거리 트레일러와 특수차량 사다리차 교통사고

여수119구조대는 유압장비 및 절단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여수시 봉계동 여천장례식장 앞 삼거리에서 트레일러와 특수차량 사다리차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트레일러 뒷부분에 사다리차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다리차의 전면이 협착함으로써 사다리차의 운전자 A씨(남 52)씨의 다리가 끼여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여수119구조

대는 유압장비 및 절단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출동한 구급대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장병태 119구조대장은 “삼거리와 교차로 진입시 항상 서행으로 전방을 주시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는 경찰조사 중이다. 이규환 기자



생활칼럼



한 정 운 변호사

합의 잘 하는 방법

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 합의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다. 재산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그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선고전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우선,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단순히 합의서에 합의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따라서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금인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형사사건변호가 있는 경우는 그 형사사건변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합의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

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두면 좋다.

③형사합의시 민사합의도 누락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되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민사합의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둔다면 향후 민사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④합의서 작성시 합의서만 받기 보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받으면 좋다. 피해자의 진심어린 탄원서는 합의서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형사공탁을 이용해서 합의에 갈음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보건칼럼



김 명 속 돌산병사보건진료소장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검사대상 :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물관리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패류독소(shellfish-poison)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라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1. 패류독소의 종류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도 있음.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금융칼럼



김 중 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은?

상 마냥 생각없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을 한다.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환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대출상환방법을 보면 첫째,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될 수 있다. 또, 대출만기에 원금상환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을 균

등하게 나눠 매달 상환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만기시점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므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출원금과 만기 시까지 이자의 총액을 합쳐서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이 방식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이 얼마만큼 상환되는 지이다. 원금부터 빨리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당장 대출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환방식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의료칼럼



이준형 원장 허리, 무릎, 어깨 전문(자연한의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가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씨의 변화가 많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

감기(Common Cold)는 바이러스에 의한 코, 인후부 등의 상기도(윗숨길) 감염을 말한다.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저절로 호전된다.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걸리지만, 성인도 연 1~4회 정도 걸린다.

원인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하고 항원성이 조금씩 다르다. 그중 주요 원인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겨 감염이 이뤄진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코를 통하여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이 되는 것이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나 콧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면 감염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증상은 코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코 점막이 붓고 재채기가 나며 콧물이 난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지만 점점 누르고 끈끈한 양상으로 변한다.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코가 막히게 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콧물이 뒤로 넘어가며 재채기도 난다. 바이러스가 인두에 침범하면 목이 부은 것 같고 심하면 통증을 느낀다. 목에 열증이 심하면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발성 기관인 후두에 침범되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이 된다. 어린이의 경우 후두 부종이 심해지면 숨쉬기가 곤란해진다.

또 감기는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발열, 오한, 몸살

환절기 감기,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1~2주 안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후비루 증후군의 가능성 등을 생각해야 한다.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보다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온몸이 떨리고, 기운이 없으며, 두통과 근육통이 심하고, 눈이 아프기도 한다. 증세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 감기보다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완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가 워낙 종류가 많고 변이성이 뛰어나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감기의 감기가 1~2주 안에 저절로

호전되므로 굳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원인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감기 치료는 증상을 가볍게 하기 위한 대증치료가 주를 이루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손 등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전염이 된다. 과로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운 곳에 가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알고 있으나, 몸이 춥다고 하여 무조건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 기도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주로 실내 생활을 하게 되어 감기에 걸린 사람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이다. 감기를 예방하고 전염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충분한 휴식 및 수분섭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

기사제보 · 독자투고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구직자 및 구인업체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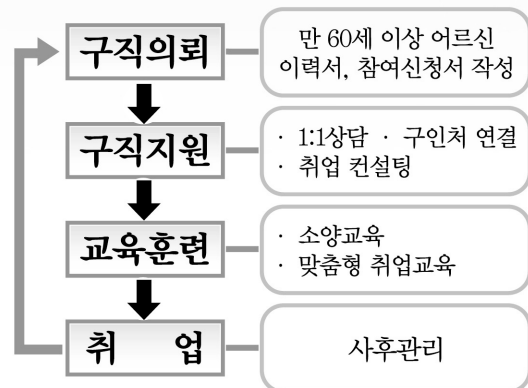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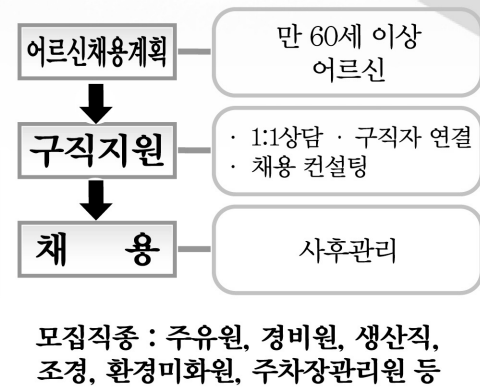
시니어
생산물 판매합니다

- ♣천생연분 떡볶이 ♣은모닝 도시락
- ♣고소미 참기름 ♣황금 두부
- ♣궁's푸드 천생연분 김치
- ♣바다내음 김부각 ♣여수 꽃빵
- ♣112카페, 카페다시봄

..... 구직자



.... 구인업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 지금 전화주십시오.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수시니어클럽
Yeosu community Senior Club

전화 ☎692-4555/9
팩스 ☎692-4556

오시는길 <여수시 만흥2길 9>
영진지동자학원 여수교외
여수시니어클럽
만성리매수축장

한화케미칼(주),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나눔 김장대축제”

뉴미디어시대 여수관광기부마케팅(Big-walk)우리지역 농산물 김치 독거노인 800세대 전달



한화케미칼(주)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맞춤형 사회환원에 나섰다. 올해 4월 부터 여수관광기부마케팅(Big-walk)사업을 통해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기부마케팅 앱을 활용하여 여수여행의 동기 유발과 뉴미디어시대 관광 선진화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기부마케팅을 통한 관광문화 선도 및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객 유인과 한 곳에만 집중하는 관광객을 여수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함이다.

한화케미칼 황명산 차장은 “여수시와 협의하여 국비, 시비, 열매발비 등 총 2억 1천만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진 계획이다. 2019년 올해 1단계로 원도심권 여수세계박람회장 ~ 돌산공원 10개소, 여천권역 웅천이순신공원 ~ 소호요트장 6개소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케미칼(주)이 지원하고 여수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19. 사랑나눔 김장대축제』 행사가 27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행되었다. 한화케미칼(주) 임직원들 비롯하여 여수시노인복지관 직원, 여수시사회복지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전 9시부터 준비하여 800세대 배달까지 약 7시간에 걸친 이번 행사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1,200포기와 갯 물김치 1,200

kg, 총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행사를 통해 준비된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세대와 조손가정 세대 등 지역 내 소외계층 총 800세대에 전달되었다.

이번 사랑나눔 김장대축제에 참가한 흥범구봉사추진위원장은 “해마다 하는 봉사지만 이번에는 우리지역 농산물로 담은 김치라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재료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

는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이 800세대 어르신들께 전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한화케미칼(주)은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김장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의 릴레이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김장나눔 행사는 대부분 12월에 진행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수확자에게 신선한 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계절 김장 나눔 행사를 계획하였다.



최현란 기자

STEP종합예술아카데미 ‘제3회 아이사랑성금모금’ 공연

재능기부 문화예술공연, 수입금 전액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아동 돕기

‘제3회 아이사랑성금모금공연’이 여수 STEP종합예술아카데미 주최로 30일(토) 여수 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예술인들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아동들을 돕는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여수STEP종합예술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력,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교육지원청, 여수일보, 사)ECO-PLUS2121, 사)여수무용협회가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본 공연은 여수지역의 여러 방면의 청소년들과 예술인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국내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는 유명 댄서팀들의 show case무대로 여수 최고의 자선공연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3회째 주최를 하고 있는 여수 STEP종합예술아카데미 김현아 단장은 “순수 재능기부로 문화예술공연이다. 마련된 수익금은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들을 돕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에 후원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팀들과 팀원, 그리고 각종 후원처들과 도움주신 분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김영주 기자



충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3

버려지는 머리카락 재탄생, 코사지만들기

버려질 머리카락이 꽃으로 피는 순간, 쓰레기에서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 있다.

머리카락을 만지고 빚는 것을 뛰어넘어 머리카락이 꽃으로 점점 변화가는 과정을 소개하겠다.

- 1.까만 머리카락을 탈색 하고 빨강, 노랑 등의 원하는 색을 입힌다.
- 2.꽃잎을 만들기 위해 품질을 한다.
- 3.꽃잎 모양으로 오래내어 꽃잎 하나 하나를 붙여서 입체적으로 꽃을 만든다.
- 4.만들어진 꽃을 이용하여 코

사지를 탄생시키고 헤어핀을 탄생시킨다.

버려지는 머리카락으로 하나의 코사지와 헤어핀을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힘이 소요된다.

고객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예술이다.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이미지 변신을 하는 컬러 체인지, 직선의 머리카락에 펴를 해서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것, 곱슬머리를 곧게 펴주는 것, 뽕이나 꼬기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물린 업스타일 등이 그렇고 특히 작



품 위주로 하는 헤어비이나이트, 크리에이티브, 데이스타일 등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율동감이나



아름디움은 뛰어난 창작성을 보인다.

수많은 머리카락을 빚길하여 공작의 날개같이 펼쳐 각양각색의 색깔을 물들인 머리카락이 꽃이 되었다.



“영취산 진달래, 봄맞이 꽃구경 여수로 오세요”

분홍빛 진달래를 한 가득 품은 여수 영취산에서 27번째 진달래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영취산은 여수시 삼암동과 중흥동에 걸쳐있는 산이다.

석가모니가 최후로 설법했던 인도의 영취산과 산 모양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취산은 전국 3대 군락지 중의 한 곳으로 10~30년생의 진달래 수만 그루가 모여 군락을 이룬 15만 평 규모의 진달래 밭이 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중 최고의 군락지는 450봉 일대

지나 작은 바위봉 부근과 진례봉 부근이다.

진달래꽃은 일명 참꽃이라 불리며 한자어로는 두견화라고 부른다.

일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꽃을 먹을 수 있고 약으로도 쓰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봄기운 가득한 영취산에서 많은 추억 쌓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진달래가 피는 4월 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규환 기자

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바람의 이유

내 안에서 바람이 불려 나왔지
너는 그 바람을 잡고 내게로 왔다

풀리는 것들은 부드럽고 강하다
햇살이 풀려서 나무가 자라고
바다가 풀려서 섬이 자라고
내가 풀려서 네가 자란다

나는 풀리는 혀로 너를 핥는다
나는 풀리는 눈으로 너를 읽는다
나는 풀리는 귀로 너를 듣는다

너는 풀리면서 꽃으로 피고
너는 풀리면서 수평선 별로 뜨고
너는 풀리면서 사랑을 한다

네 속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잡고 내게로 돌아온다

바람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내 속에서 네가 돌아오듯이
내 속에서 내가 돌아온다



박혜연

/ 詩詩한 이야기 /

풀리는 것은 강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네게서 내게서 온다.



우동식

사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이미지의 형상화 작업은 그 사물의 깊은 곳을 살펴보고 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 사물과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밑바닥까지 구성구석을 보아야 하고 그 사물의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사물의 내면을 치밀하게 살필 때 좋은 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의 의미를 통찰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물을 깊이 응시하는 시선과 교감을 통한 사유에서 온다.

박혜연 시인은 현재 (사)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장이다. 그의 첫 시집 【붉은 환주로】에 실려 있는 <바람의 이유>는 응시와 사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속성과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람의 허를 보았고 바람의 눈을 보았고 바람의 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바람이 되어 바람의 풀리는 혀로 핥았고 바람의 풀리는 눈으로 읽었고 바람의 풀리는 귀로 들었다. 그 바람은 다분히 풀리는 바람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이다.

이 바람 속에는 우주를 향하는 길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보인다.

시인은 바람과 소통하면서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있으며 내면의 깊은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 싱그러운 봄 날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풀리는 것은 강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게서 내게서 온다. 그 바람은 희망(希)이고 욕망(欲)이고 바람(風)이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건 8월”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인생의 80%는 바람 때문에 산다는 것이다. 강한 바람 센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풀리는 바람이 있다. 봄 바람이 있다. 풀리면서 꽃은 피고 풀리면서 수평선 별은 뜨고 풀리면서 사랑을 한다. 내 안에서 바람이 불려 나온다.

우동식 시인

여수시, 다문화가정 부부행복 클래스 ‘호응’

의사소통, 부모역할 등 이론교육 30명 참여...10일부터 제주도 문화체험 진행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행복 클래스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부행복 클래스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존감을 높이고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문화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부인나라 문화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미라가정설계’, ‘부모역할’ 등이었다.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제주도로 문화체험도 다녀올 계획이다. 문화체험 행사는 여수시다문화센터가 주관하고 여수 산돌교회가 후원한다. 산돌교회는 11년 동안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김 모(남)씨는 “부부행복 클래스를 통해 아내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준 여수산돌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다문화 부부가 행복한 가

정을 꾸리도록 교육 진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여수시 사회복지이용시설,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모두 A등급 받아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여수시 사회복지이용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전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 선정 시설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6개소다.

이번 평가는 전국 34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246개 노인복지관, 104개 양로시설과 113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총 803개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관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이었다.

여수시 6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투명한 재정·조직운영과 주민 복지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여수시 김진우 노인복지관장은 “이번 결과는 여수시와 시설종사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서비스



▲여수노인복지관 전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는 76명이며, 일 평균 1290여 명이 프로그램과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

최학란 기자

여수 읍촌 반월마을 ‘노오란 유채꽃’ 한창



여수시 읍촌면 반월마을에서는 유채꽃이 한창이다.

유채꽃 축제는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제주도까지 가기 어려운 관광객이 여수 반월의 유채꽃 축제(6일~7일)로 모여들었다.

이번 행사가 펼쳐진 반월지역은 작은 어촌으로 여수도심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다. 2012년부터 꽃을 심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축제의 장을 3회째 열었다. 반월 유채꽃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여수시의 홍보에 힘입어 봄꽃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유채꽃 광장에는 유채꽃 그림그리기, 청소년 댄스무지, 인기가수 축하무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반월 유채꽃은 4월 둘째 주가 적기라서 행복한 봄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반월주민들은 말했다. 정혜수 시민기자

<여수지역 당선 조합장, 한 마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김상문 조합장

첫째, 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수협 둘째, 조합원과 고객 중심의 수협 셋째,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넷째, 지역사회 공헌으로 새로운 수협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여수농업협동조합
박현영조합장

첫째, 농업운영의 민주화 둘째, 농업의 건전경영으로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확대 셋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여천 농업협동조합
박상근 조합장

첫째, 6천억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둘째, 인터넷뱅크의 사업확장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셋째, 경제사업의 패러다임인 유통중심의 새로운 고객창출을 역점 넷째, 영농자재의 통합구매로 인한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



여수시 산림조합
양재승 조합장

첫째, 조합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조합원 증원을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 조합원 복지시책을 확대. 두 번째, 금융사업 활성화, 신규 투자 사업을 확대

세 번째, 출자배당금을 확대지급, 영세조합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지원 장학금을 지급 정책자금 확대 지급

네 번째, 산비탈개척에 따른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지원 산단사업 수주 및 시공 확대
오은진 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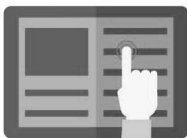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메일 ysibtv@hanmail.net



멋진 사람, 멋진 여자... 삶을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환한 사람



김미진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신생어드바이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번쩍이는 귀걸이를 하도 웬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100% 빛나는 사람이 있다.

멋진 사람은 맨 몸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리더라고 칭하지 않아도 리더의 기질이 있어 두려움 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여론의 반대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성이라서 더욱 숭고하고 값질 때가 있다.

소외받는 곳,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서슴치 않고 달려가 손잡아주는 여성리더가 있다.

다음은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김미진 신생어드바이저와의 일문일답이다.

- 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마음과 집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낮춰야겠죠? 클럽의 목적에 맞춰 회원들과 일체감을 갖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을 회원 개인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 국제로타리클럽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세계최초 민간봉사 단체로 11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120만 이웃과 친구들의 글로벌 연결망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함께 열정과 에너지 창의력과 지혜를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친선교류와 세계평화와 유호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 로타리클럽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외 활동을 하나요?

세계 3만722개의 지구가 '세상에 감동'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 인종, 종교를 초월한 단체로 소아마비, 문맹퇴치, 전염병 퇴치 캠페인을 합니다. 평화증진, 기아, 질병퇴치, 환경보전, 위생



개선, 모자보건향상, 교육지원 등 인도적인 봉사를 제공합니다. 국제로타리 클럽은 행복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에게 주어진 풍요를 환원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국제로타리 클럽에서 김미진회장의 주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수시청 로타리클럽을 창립했습니다. 100명 회원클럽을 스폰서클럽했고 한울로타리클럽도 100인 클럽으로 성장시켰으며 대만 원만클럽과 재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글로벌보조금 5만불을 지원받아 여성장애인 푸드트럭을 기증하였습니다. 여수지역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었고 여성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했고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국제 로타리 3610지구 80개 클럽에서 2016-17

년 종합대상을 받은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닌 종합대상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회원들과 함께 수고했던 많은 날들에 대한 뜻깊은 뿌듯함이고 앞으로 더욱더 낮은 곳으로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데 노력할 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도 해외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신데요.

캄보디아 청소년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을 갔을 때 씨엠립 근처 모민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인성질환에 걸려 눈도 못 뜨고 배설물이 되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우물을 파주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시는 그 아이들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우물기증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 현재 결혼정보회사 웨드를 운영하시는데, 웨



드가 추구하는 결혼관이 있다면요?

결혼이 서로 상생하고 1+1의 인간 삶의 질에 도움과 행복의 원천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결혼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노총각의 커플들이 탄생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국가인구증가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 여기고 소신껏 열심히 중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진에게 봉사는 무엇인가요?

봉사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위안이지요.

- 진정으로 멋지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구속이라는 틀에 가두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빛나는 멋진 삶이 아닐까요!

최현란 기자



책임시공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 성 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미술 사랑 협동조합 10개의 포즈 - 1편



#강창구

소통, 고요한 원형 서정을 화두로 풀다

그가 보여주려는 풍경코드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해석된 삶의 메시지를 지닌 의미 체형이다.

그가 바라보는 대상, 풍경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발견적 상상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자의 전이해(前理解)를 새롭게 해준다. 즉 그의 풍경은 짜든 관념을 정화해 새롭게 해주는 서정이면서 서사의 중심 오브제가 되어 감

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이해를 돕는다.

자연과 사람의 좋은 만남을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풍경이 갖는 넓은 생명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봄 가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함께 넉넉하고 고요하게 해준다.

그의 조형 어법을 말하자면 소멸과 존재의 순환에 기대어 불처럼 바람처럼 가끔 투명해서 세상사 모든 맞힌 것을 풀어낸다. 풀면 풀수록 고요해지



#정재중

우리시대의 인간 사랑의 포즈 연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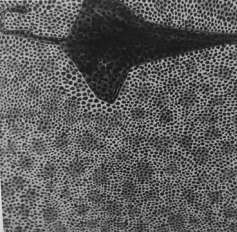
정재중의 중심 포즈인 '모자상'에서 이러한 진솔한 자형字形的 의미를 만나게 된다.

그의 '모자상'은 전통과 모더니즘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머니와 아이'의 시선이 전해주는 전통적 서정과 따뜻한 인간 사랑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정재중의 그림 앞에 서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행복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선은 곧 마음이고 포즈는 곧 이야기다.

작가는 삶을 조용히 응시하는 어머니의 자애한 시선을 깊이 있게 통찰함으로써 힘림의 담론을 제시한다. 자신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유년의 '어머니'를 환기시켜 곁에 세우고 어머니라는 외연을 통해 자애와 사랑이라는 소중한 내포를 일깨워 삶의 의미를 함축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눈망울, 그 시선이야말로 우리 삶을 따뜻하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삶



#양수균

기억을 다시 기억하다.

그의 작업은 출발은 기억의 소환이다. 기억을 다시 기억하기다. 유년시절부터 살아오는 동안 인상적으로 저장된 모든 기억의 편린들을 불러내어 조각보처럼 연결하여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의 아이디어는 패턴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패턴인식으로 자리한다. 그의 기억 속에 자리하는

바다, 섬, 우산, 돌판, 이쁨모를 들꽃과 풀잎, 그리고 바라는 훼손되지 않은 삶에 대한 그리움이자 원형적 품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의 기억의 원형이다. 그의 그리움의 소재들은 다분히 그가 반추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재발견과 적용으로 자리한다. 즉 바다



#이형모

신비롭고 장엄한 물속의 화엄華嚴,

이형모의 통찰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통찰은 세계의 원형을 끊임없는 탐색하는 자기 질문이고 소통이다. 그것도 물속을 유영하면서 물속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과 소통하고, 그 속에 있는 풍경을 통해 유포피아적 삶의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물속의 맑고 행복한 세상과의 소통이다.

그의 물속 세상은 가 보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풍경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물속 풍경을 통해 바깥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맑은 삶에 대한 의미체함을 갖게 해준다.

신비롭고 장엄한 물속의 화엄華嚴.

물 속 풍경을 통해 또 다른 삶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작가다.

그가 실제 물속에서 보고 느낀 상상력을 바탕으로 펼쳐놓은 화두가 있다면 그가 바라보는 바다는 어떤 상징에 담여있고 어떤 상상력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감각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바다는 더욱 생명력 넘치는 존



#김상선

바람소리를 화폭에 담다

김상선이 즐겨 담는 메시지 중의 하나는 '바람'을 통해 대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소리를 담는다. 그의 바람은 살아있는 화석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스스로 살아남아서 떠도는 순환의 질서를 상징한다. 그래서 바람(wind)은 바람(hope)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자연 그리고 소통'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성을 담아낸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다. 대작 중심으로 한 것도 이러한 그의 철학을 담아내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학을 통해 그려낸 그의 품 넓은 사랑법이다. '무애'라는 말이 있다. 막히거나 거치는 것이 없음을 뜻하는 무애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잡히고 싶은 자 잡들게 하라'는 전언과 통해 있다. 이처럼 바람 불고 꽃피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읽으면서 기실

고 맑아지는 것이 풍경이고 그것이 곧 그의 마음 안의 세상이 된다. 그러다보니 기교를 버린 데서 정화의 깊이를 얻고 과장되지 않은 통찰로 이면에 숨어있는 풍경의 진실을 풀어 소통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소통은 맑고 고요하고 정적하다.

그의 매력은 이러한 조형적 소통을 통해 새롭게 유추된 상호의미를 확대하는데 깊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와 나무, 바닷가 풍경, 산의 인상, 여수 시가지, 섬과 산 등은 우리가 만나 는 낯익은 풍경이지만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응축과 생략으로 오브제들 상호간에 맺고 있는 의

미유추를 통해 새로운 풍경체현으로 소통된다. 본래적인 원색을 주관적인 인상으로 비틀어 고착된 색채관념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조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칼 바르트(Karl Barth)의 '매체(object) 속에 들어 있는 말씀(Word)'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것은 눈에 닿은 풍경의 미적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을 정화시켜준다. 대상에서 와 닿는 존재의 넓이와 깊이를 다르론의 질감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대상과 대상의 존재감이 연쇄적으로 만나 만들어낸 의미적 풍경이다.

더 넓고 깊게 해주는 메타포가 된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존재의 조건이면서 삶의 줄거움이다.

정재중의 중심 포즈인 '모자상'은 한국적 여성 의 순수하고 자애한 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안겨있다. '어머니'라는 말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복합적 포즈로 재생함으로써 자꾸만 사라져가는 인간사랑에 대한 의미체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사라져가고 있는 포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직 우리 삶의 한 가운데 서식하는 가슴 포근한 이야기다.

그는 어머니의 평화로움과 넉넉한, 고요한 응시

를 미적으로 승화시켜 두고 있다.

젓가슴을 다 드러낸 낯익은 풍경체현을 통해 육아는 물론 강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모성을 체현하게 하며, 더불어 우리의 밑바닥에 안겨 있는 유년의 유포피아를 재생시켜 인간사랑을 다독여 준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 풍경과 풍경들이 서로 조응하면서 정겹고 따뜻한 세상을 그려낸다.

우리시대의 인간 사랑의 포즈 연출가 정재중.

그래서 그를 만나면 한없이 포근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와 우산, 섬과 돌판, 우산과 섬, 섬과 꽃잎, 들꽃과 바다 등으로의 재구성고 만남, 소통과 통섭의 에디톨로지를 통해 경이로운 세계를 체현하게 한다. 그래서 패턴은 정답이 하나가 아님을 보여준다.

저마다 제 포즈를 유지하면서 에디톨로지를 통해 지나온 시간과 기억의 패턴을 재창조해낸다.

구상과 추상의 만남과 소통을 눈여겨보게 되는 재미가 여기에 있다. 기억 속 포즈들이 경계를 허물고 만나는 자리에서 중대하고 놀라운 사물의 본

질을 드러내는 추상이 오브랩된다.

추상은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체현을 만나려는 회화적 과정이다.

그래서 그의 기억 속 인상trace은 그의 잠재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흔적이면서,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도 다분히 '그리움 혹은 새로운 패턴인식을 향한 내러티브'의 에너지원으로 자리한다.

그녀의 기억, 이데아, 그녀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이다.

제로 묘사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각적인 상상뿐만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까지 환기시켜준다.

그리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물 밖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맑게 씻어 정화시켜주는 것이다.

격동과 정적이 있는가 하면 흐름과 멈춤도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혼돈과 질서, 평화와 다름이 있는 양면적 모습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진행형의 바다이며, 술하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 길 속에는 우리의 가장 순수한 본능적 실존을 반추하게 하는 현실이 있다.

그럼에도 작가 이형모의 바다 속은 조용하다.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고 신비하다.

마치 산사와 같은 정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

음이 비워지고 경건해지는 신비로운 울림이 있다.

그 속에도 길이 있고, 영롱한 생명의 흐름이 있고, 변화무쌍한 빛의 향연이 있고, 물고기와 해초의 맑고 고운 언어가 있으며, 평화와 있고 사랑의 이야기가 있으며 푸른 숲이 있는 삶의 공간 그 자체다.

그가 수중 깊이 열어놓은 물길은 인간과 자연이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삶을 공유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가 물 속에 열어놓은 길의 여정은 육상에서의 모든 법이 바다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며, 함께 자연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통로이자 울림이다.

자신을 읽고 있는 중이다. 독서의 고수는 바로 자연을 읽고 자신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발견이 가능해진다. 그 발견이 몸이 되고 삶이 되고, 내 피로 흐름 때에 한 편의 작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자로 하여금 '비학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조형 즉 형상화란 관찰의 힘을 구체적인 삶과 연결짓는 사색이며 힘이다. 이 힘이 바로 우리 삶의 아픈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가 왜 이 낯익은 화두를 다시 꺼내들었을까. 아마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읽어보려는 의지

가 분명하다. 우리가 가끔 복잡한 삶의 현장을 떠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듯 그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다.

바람시리지를 중심으로한 풍경체현은 현대인의 삶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는 그만의 꿈꾸기에 다름아니다. 도식적인 관념에 얽매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가 꿈꾸는 삶은 그래서 다분히 은유적이고 회귀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작품이 원색적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은유적 삶을 향한 데포르미자 그만의 꿈꾸기다.





(유)지운산업

건설중기 임대 · 대여/토공 · 철콘
골재 도 · 소매/잔토처리

대표 이수한

전남 여수시 성산6길 54-1, 2층(화장동)
Mobile. 010-4030-8267
Tel.061)686-8267 Fax. 061)686-8268
E-mail. lk6516786@naver.com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만보의 기적”

여수보건소, 시민 건강증진, 아름다운 여수 알리기 캠페인



여수시보건소가 한 달에 두 번 총 12회로 기획된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행사를 시작했다.

3월 1차 구미평공원에서 출발하여 구여천역 원학동공원까지 10km를 약 2백명의 참석자를 시작으로 16일(토), 2차는 미평역에서 출발하여 만성리레일바이크까지 10km를 약 4백명의 참석자로 23일(토) 시행하였다.

여수시 보건소에서 하는 이 행사는 “또박이 여수 하루 만보의 기적”을 위한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로 여수시민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여수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걷기 장소로 16.1km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여수보건소건강증진과 이주리 과장은 “여수시가 시민들을 위해 개방한 친환경 공원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수 시민 및 민간단체 등 누구나 참가 가능했던 두 번째 행사에는 구미평공원에 집결하여 만보의 기적을 위한 워크온 여수 가입을 한 시민들이 걷기출발에 앞서 준비체조와 올바른 걷기 자세 등의 안내를 받았다.

이번 걷기 좋은 길은 10km의 거리(미평공원~만성리레일바이크) 걷기로 약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7천보 이상 걷기에 성공한 시민들에게 캠페인품을 기념으로 나눠줬다.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득현 차장은 “걷기 행사 참가하기 전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셔야지 만보의 기적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행사 당일 안전을 위해서도 평소에 걷기운동을 자주 하시길 권장한다.”는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는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3차는 4월6일 토요일 선소에서 출발

하여 소호동동다리를 지나서 소호요트장까지 약 6km 구간이며, 4월5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상해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체육관련실(전화:659-4213, 4273) 클. 최현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무장애 나눔 ‘제3회 숲속 힐링 음악회’

사랑 나눔 재능기부, 따뜻한 봄날 행복한 나눔 음악회

“2008년부터 이곳 숲 입구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었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볼수 없는 멀고 먼 숲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이 곳, 계단이 아닌 평평한 길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수시와 산림과에 건의를 드렸고 드디어 2017년 이곳에 무장애 나눔길이 열렸습니다. 숲속에서 동등한 여수시민의 자격으로 오늘처럼 음악회를 즐기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최종순 사무국장

300여명의 여수시민과 함께 하는 ‘제3회 숲속 힐링 음악회’(4월)가 무장애 나눔 숲 봉화산 산림목장에 열렸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전종근관장)이 주최하고 종화밴드(백종화단장), 사)ECO-PLUS(김영주회장)이 주관하였으며 주)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강수진본부장)의 후원으로 진행 되었다.

3회째 행사인 숲속 힐링 음악회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유치원생 어린이들과 숲을 찾는 많은 시민들을 위하여 종화밴드(백종화단장)와 지역 뮤지션들의 재능기부 출연으로 진행되는 나눔 음악회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종근 관장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좋은 숲에서 수준 높은 음악을 함께 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흐뭇하다. 협조해주신 종화밴드와 주)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 감사드린다. 4회 때도 행복한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행사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직원들이 무장애숲 공원으로 휠체어 밀어주기 봉사하는 모습.

후원과 함께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동 봉사를 해준 주)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강수진본부장은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숲속 힐링 음악회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지속적인 후원과 동참을 약속했다.

여수시환경복지과 송성현국장은 “올해 6월이면 반대편 길도 무장애 나눔길이 완공된다. 이제 여수시민 누구든지 무장애 나눔 숲속 힐링

음악회를 즐길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회 행사에는 라임하모니가 앙상블 김선영단장 외 13명의 하모니카회원, 사)ECO-PLUS의 어린이지킴이의 오카리나연주가 있었고, 여수시립합창단 단원인 최애화, 조상순, 박옥주, 손유진, 김수진, 김진영 6명 성악가의 재능기부가 함께 했다.

김영주 기자



결혼정보회사
웨드

꽃을 찾는 나비처럼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로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 유료회원수 전남 최다 보유로 당신과 어울리는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혼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혼율은 웨드의 자랑입니다.
- 역사와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1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짝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전남2008-023
신고번호-전남2008-0003

☎ 061) 683-1000

